

건축문화 **시조상**

Vol.001 10. November 2009
www.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광역시건축사회 News Letter 2009 | 창간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특집

제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건축문화심포지움 / 유홍준, 임권택, 김상대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 작품 전시

기획탐방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

상 속에 녹아 있는 '더할 나위 없는' 디자인의 실마리를 찾아서
예술총감독 '은병수', 큐레이터 '조병수' 인터뷰

News

건축사 그룹화 특별위원회 활발한 활동 펼쳐...

광주-후쿠오카교류 10주년 기념지 「교류는 미래를 향한 도전」 발간

각 대학 소식

'광주 건축 지도' 발간

소식지에 바란다

발간사

건축인과 시민들의 공유를 통한 소통,
소통을 통한 공감, 공감을 통한 감동...



신정철
광주건축사회 회장

하늘 높고 국향 그윽해가는 만추의 길목에서 이 지역 건축인의 오랜 숙제였던 건축인 소식지「건축문화사랑」을 마침내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문화사랑」의 발간 목적은, 건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축인들 간의 장로를

뛰어넘어 경계를 허무는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함이며, 건축인과 시민들의 공유를 통한 소통, 소통을 통한 공감, 공감을 통한 감동, 감동을 통한 공존의 형성에 있습니다.

「건축문화사랑」창간은 건축문화를 만들어가는 건축인의 건축사랑에 대한 진솔한 고민과 자세를 언론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에 전해줌으로서 건축이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건축문화를 통한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뜻 깊은 역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축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갖고 건축문화의 발전을 주도하며 그 중심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도시와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하여 건축문화의 저변을 넓혀 나가는 일이 우리의 노력과 생각만큼 결과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건축문화사랑」창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화 창구로서 이 시대의 중심에 서있는 건축인들의 사회적 책임, 우리가 전문가로서 꼭 지켜내야 할 이 시대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일, 이 도시를 건축 문화도시로 성장시켜 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문화정책과 생각을 담아내는 일, 그동안 우리의 침묵 속에 담겨있던 건축에 대한 많은 생각들, 전문가의 메시지를 시민사회 속에 전하는 건축의 문화적 소통, 우리를 지극한 건축인으로 키워준 이 사회에 대한 문화적 기여와 환원, 시대성을 담아 건축가가 전달하는 물리적이고 조형적으로 구체화되는 퍼포먼스, 건축문화의 엄청난 변화와 그 속도를 읽어 내는 일, 건축 전문가의 위상을 알리고 바로 세우는 일 등 실로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고 건축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계절 내내 여러분 모두의 가정위에 건강과 가을의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김강수
전북건축사회 회장

건축문화사랑 창간을 축하하며

한해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이때 호남지역 건축인들의 대변자인 건축문화사랑의 뜻깊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광주지역 건축사회와 신정철 회장님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더욱이 건축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건축정책 자문위원회가 신설되어 건축에 관한 관심이 한층 고취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월간 건축문화사랑의 창간은 호남지역의 건축문화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범 호남 건축인들의 자부심으로 자리할 것을 생각하니 매우 가슴 뿌듯합니다.

이제 본지의 창간으로 우리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은 물론 건축물의 질적 수준향상을 꾀하고, 건축으로 인한 지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하며, 또한 지역민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인들에게도 건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호남지역의 건축소식을 접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의 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나라의 건축문화 창달은 국민과 건축인의 공감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건축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건축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또한 건축계는 건축정보의 흐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지가 이와 같은 건축정보를 건축인 모두가 공유하는 매체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토론과 여론수렴의 광장으로써 관심을 집중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명실공히 건축인들의 전문지로서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기를 바라며, 우리 건축인들의 또하나의 희망적인 변화에 부응할 건축문화사랑 창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축사

지역건축문화를 성숙시켜 나갈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길...



최영진
대한건축사회 회장

지역건축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담고자 새롭게 News letter 「건축문화사랑」을 창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의 「건축문화사랑」은 앞으로 건축문화와 건축인, 일반시민들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이자 정보교류의 장이며 전문적

시각에 의한 정보제공과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지역건축문화가 성숙하는데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시다시피 건축문화는 한 나라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입니다만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증폭되어야 그 공감대 속에서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예를 들더라도 건축에 대한 국민적 사랑이 높은 국가가 문화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건축문화발전을 토대로 국가의 품격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으며, 건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크게 달라지고 있고 건축에 대한 기대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축은 인간의 3대 문화 중 하나로 우리를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 「건축문화사랑」도 건축의 이러한 역할을 크게 인식하여 일반 시민들과 올바른 건축담론을 형성하고, 건축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광주지역이 나아가야 할 건축문화의 미래를 제시하고 또 건축사를 비롯하여 건축인, 시민 모두가 건축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건축문화사랑」 발행이 지역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언론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



이성엽
전북건축사회 회장

광주광역시건축사회의 「건축문화사랑」 창간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날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보다 사업성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양적 공급에 치우쳐 획일화된 모습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은 건축의 공공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축의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에 합당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건축문화사랑」의 창간은 건축의 문화시대를 맞이하여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의식 전환과 건축문화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는 인간만이 향유할 수 있는 최고 가치의 지적 생산물인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경쟁력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건축은 우리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문화 유산이며 국가 자산으로, 21세기 문화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는 국가 경쟁력이며 문화산업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 하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건축문화사랑」의 발행은 건축 전문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인식의 전환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문화 중심도시를 꿈꾸는 광주광역시 목표를 이루는데 「건축문화사랑」 발행이 지역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언론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축문화사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축 사

건축은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예술...

박 광 태
광주광역시 시장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의 '건축문화사랑'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아름다운 도시로 꾸며나가고자 건축문화 창달에 헌신해 오신 市건축사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은 인류와 태동과 더불어 호흡하며 발전해 왔고 인류는 건축을 통해 도시를 형성하며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건축은 한 시대의 문화적 기념비라는 말처럼 건축문화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예술과 생활, 그리고 과학기술의 총화입니다.

우리는 '건축물이 곧 문화라는 인식하에 시민의 생활과 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후손에게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겨 줄 건축문화 중심의 도시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디자인중심의 친환경도시를 조성해 도시의 품질과 브랜드가치를 높이면서 문화수도의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해 광주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담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창의적 건축문화를 발굴하면서 우리시의 건축기술 향상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로부터 독창적인 예술성과 과학적인 기능성을 추구하는 훌륭한 건축문화의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열정이 우리 고유의 문화자산에 새로운 건축문화를 결합시켜 아름다운 문화수도 광주의 건설한 기틀을 세워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건축이 우리의 소중한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예술이라는 점에서, 각계의 관계자 모두가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힘을 합해 문화수도의 걸맞은 디자인 중심의 매력적인 건축물을 구성하면서 아시아문화허브이자 경쟁력 높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독창적인 도시문화를 이뤄 오신 건축가족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존경받는 언론으로 성장하길...

최 규 철
광주광역시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

우리 지역의 새로운 언론 '건축문화사랑'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간준비를 해 오신 신정철 광주건축사회장님을 비롯한 건축사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방문할 때 가장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건축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시경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에펠탑, 중국의 자금성, 인도의 타지마할, 티베트의 포탈라궁,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석사 무량수전 등은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드러냅니다.

또한 대대손손 자랑할 만한 건축물은 도시의 예술품이자 동시에 상징이미지가 짙은 랜드마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에 광주건축사에서 발행하는 '건축문화사랑'이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존경받는 언론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우프록 오늘 창간하는 '건축문화사랑'이 건축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건축의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며 임직원과 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보람과 성취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지역건축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박 치 영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

금번 "건축문화사랑"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축은 그 시대의 기술수준과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건축의 발전이 곧 인류문명 발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중요성 또한 우리 인간의 삶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건축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주거공간과 산업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이제는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문화적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수도를 표방하는 광주에 건축 디자인을 접목하여 예술성 있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축문화를 창조하고, 아울러 우리 지역 이미지 제고와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만드는데 지역건축인 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세계는 국가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건축 디자인과 예술성이 융합되면서 지구촌 각지에서 마천루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건축물이 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되는 시대적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축경기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축문화사랑"의 창간이 지역건축인 들의 화합과 지역건축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의향, 예향, 첨단산업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광주에 걸 맞는 차원 높고, 미려한 건축물을 형성화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 유일의 건축전문지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건축문화사랑"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건축문화사랑' 창간을 축하합니다.

- 광주건축사회 골프동호회 회장 김 회 현
- 광주건축사회 낚시동호회 회장 김 보 현
- 광주건축사회 등산동호회 회장 박 무 길
- 광주건축사회 미술동호회 회장 김 유 지
- 광주건축사회 바둑동호회 회장 박 영 희
- 광주건축사회 축구동호회 회장 심 상 봉

'건축문화사랑' 창간을 축하합니다.

- 광주건축사회 동구협의회 회장 박 흥 근
- 광주건축사회 서구협의회 회장 김 종 철
- 광주건축사회 남구협의회 회장 노 진 옥
- 광주건축사회 북구협의회 회장 신 찬 균
- 광주건축사회 광산구협의회 회장 강 기 석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삶 속에 녹아 있는 '더할 나위 없는' 디자인의 실마리를 찾아서



'건축문화사랑' 창간에 즈음하여 이 지역에서는 'The Clue-더할 나위 없는'이라는 주제로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디자인총감독-은병수)'가 개최되었다(제3회, 9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입고, 먹고, 쉬고, 배우고, 즐기는 인간의 총체적 삶에서 디자인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했던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건축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마리를 던져 본다.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크게 주제전, 프로젝트전, 특별프로젝트로 구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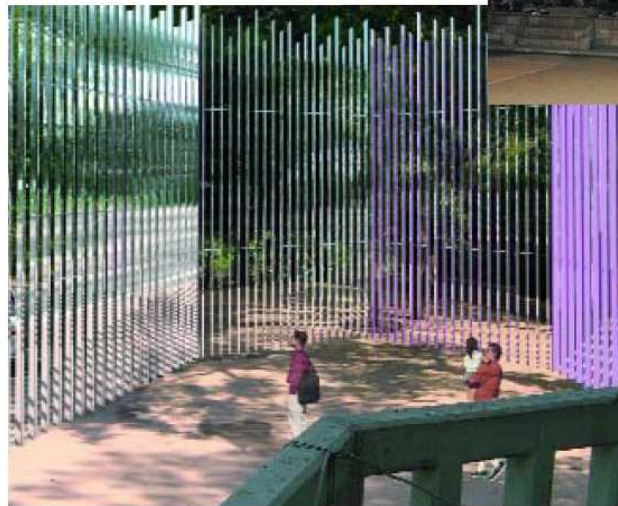
'주제전'에서는 문화를 디자인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기 위해 삶의 근간을 이루는 '옷(衣), 맛(食), 집(住), 글(學), 소리(樂)' 등의 다섯 가지 소주제를 설정하고, 각 주제가 지닌 디자인적 내용과 의미 그리고 방법을 살펴봄, 한국의 문화원형과 디자인을 결합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더할 나위 없는' 가치를 선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했다.

'프로젝트전'은 '총체적 삶'의 관점에서 다섯 가지 소주제가 영역간의 경계없이 교차하며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살림, 살핌, 어울림'의 과정에서 디자인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특별프로젝트'로는 사직공원 팔각정을 리모델링한 '상징조형물 조성'과 관객이 참여하는 '싱싱 노래방'이 가미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구성된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전반적인 특징은 '있는 그대로의 한국문화와 '총체적인 삶' 속에서 한국 디자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외래문화가 더해지지 않은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디자인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고, 이미 더해진 상태에서는 다문화를 인정하고 조화와 공존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한국문화를 모태로 하는 디자인은 국제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더할 나위 없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상징조형물-번사 굴절에 의한 빛의 움직임 시간과 색상의 변화 등으로 인간이 만든 팔각정과 주변의 자연환경이 서로 스며들며 소통하도록 거듭난 팔각정조형수 작)

衣 · 食 · 住 · 學 ·



(이장우가옥에서 열리는 공연 - 거리로 뒤희나와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꺼리' 들을 제공했던 '어울림'에서는 양림동 근대문화와 한옥을 전시공간으로 끌어들었다.)



(「하나의 지구, 하나의 태양」은 15°의 경도마다 세계 24개소에 같은 규격의 '라이트박스'를 설치하여 각 지역에 비추는 태양빛의 다양한 모습을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비교하며 볼 수 있게 만든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우주의 섭리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환경과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류는 하나의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하나의 지구 위에 공존하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 Interview



은병수 Eun Byung-soo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은병수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뉴욕 프랫인스티튜트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였다. 1989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인 212Korea를 설립하고, 2001년 디자인 브랜드 VIUM을 미국, 한국, 일본에 런칭했다. 프랑스 메종드오브제 초청 디자이너(2004),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본전시 아시아디자인전 큐레이터(2005), KT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총괄디렉터(2006) 등을 역임했다.(eun@gb.or.kr)

건축은 디자인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 지휘자 '은병수'

은병수 2009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과의 인터뷰는 광주비엔날레관 예술총감독실에서 이루어 졌는데 친절하게도 대화의 초점을 건축에 맞춰주는 자상함으로 애송이 기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가 건축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그는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를 많은 건축인들이 실마리(The Clue)를 찾는 '아이디어의 샘'으로 보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대화를 풀어 나갔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에는 디자인의 요소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먹고, 마시고, 쉬고, 배우고, 즐기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대부분이 건축물(Living Area)과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지므로 당연히 건축은 디자인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면서, "삶의 근간을 이루는 '옷, 맛, 집, 글, 소리' 등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했으니, 많은 건축인들이 이번 2009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서 새롭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여 건축에 담아내기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살림, 살림, 어울림'에 대한 디자인에 있어서도 건축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살림'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현대 사회는 소통과 어울림의 시대라고 하며, 인공적인 건축물과 자연환경과의 어울림, 전통과 현대의 어울림, 생활과 건축의 어울림, 건축과 디자인의 어울림 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통가옥과 앙림동 근대화 및 소재원을 비엔날레에 끌어들었다고 했다.

또한 2009광주비엔날레를 통해 건축인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디자이너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메시지에 대해, "이제는 우리의 얼굴을 갖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유한 문화 속에서 창의적인 디자인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 그는 "디자인에서도 한국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다.

건축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은?

건축에서의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그는 한마디로 "'건축의 힘! 디자인의 힘!은 위대하다!'라고 했다. 그는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와

'스페인의 건축가 가우디' 그리고 폐광촌을 세계적 관광지로 만든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 등을 예로 들며 건축에서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진정한 건축인은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나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축주의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디자인의 힘은 그 어떠한 규제나 제약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건축인은 그러한 규제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건축 전문가 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의 정체성을 갖는 건축물', '창의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향후 비엔날레에는 지역 건축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서재형 건축사 기자 archiseo@lycos.co.kr
신영은 건축사 기자 archsye@naver.com

樂

토방

(주) 토방건축사사무소
(주) 토방 하우스

(주) 토방건축사사무소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변동 154-4(3층) | 대표번호 | 1-827-775, 8175-11 | 1-827-775, 8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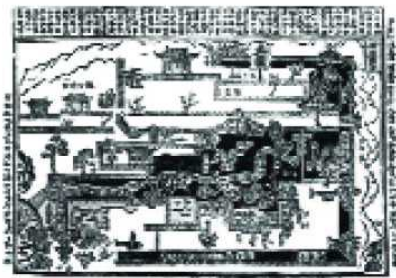
(주) 토방하우스(공점)
주 소 | 전북 익산시 부곡면 청암리 271-3(1층) | 대표번호 | 1-821-373, 4780 | 1-821-373, 4783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 | 더할 나위 없는 집 '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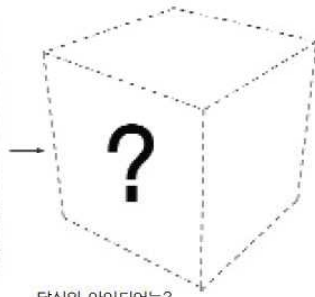
‘소쇄원으로부터의 영감’

– '침'의 실마리를 찾아서 –

'집(往)'이라는 소 주제전은 다시금 '하나의 지구, 하나의 태양'과 '소쇄원으로부터의 영감'이라는 타이틀로 나뉘는데 조병수씨가 큐레이터를 맡았다.



소쇄원



당신의 아이디어는?



'소쇄원으로부터의 영감'은 우리지역에 위치한 '소쇄원'을 대상으로 주거건축의 본질인 '침'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시도였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16세기에 조성된 한국 전통의 정원을 여러 나라 각 계각층의 작가들이 나름대로의 방식에

의해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주거건축 디자인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제안하고자 한 것이다. 공간의 크기를 한국 전통건축의 기본 단위인 '한 칸' 정도(2x2x2m)로 제한한 것 외에는 표현에 대한 제약은 없었고, 참여 작가도 다

양했다. 28개국에서 40여명의 작가와 25개 기업이 참여하여 50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국내외의 건축가를 비롯하여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 소설가 이외수, 시인 황지우, 연극연출가 손진책, 무용가 국수호, 아나운서 황인용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참여하였다. 삶의 환경으로서의 집,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집을 통하여 총체적인 삶으로서의 디자인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새롭게 조명해보자 하는 그들의 시도에서 건축인들은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 ① 소쇄원은 '틈을 통해 드러나는 공간'이다.(Office dA /건축사무소/미국)
- ② 소쇄원은 '결'이다.(윤정섭/음악가/대한민국)
- ③ 소쇄원은 '대비되는 것들의 조화'이다.(마케카연구소/건축사무소/남아프리카)
- ④ 소쇄원은 '자연의 평온한 모습'이다.(이사르건축사무소/미국)
- ⑤ 소쇄원은 '대나무 숲을 통해 들어가는 순수한 마음의 공간'이다.(Thomas Schroeter/하버드 건축대학원 교수/미국)
- ⑥ 소쇄원은 '단단하고 연약한 것, 유동적이고 정돈된 것, 정확한 것과 우연적인 것의 관계'이다.(피터슈라이어/기아자동차 부사장/독일)

Interview



조 / 병 / 수

상징조형물을 디자인하고 주제전의 큐레이터로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참여한 미국건축사(이하 건축사로 표기) 조병수는 1994년 건축연구소를 개소한 이후, '경험과 인식', '존재하는 것, 존재했던 것', '자집과 '자집', '현대적 버니콜라', '유기성과 추상성' 등의 테마를 가지고 활발히 활동해왔다. 대표작으로는 배제대학교 예술관, 아름스유치원, TT프로젝트, 소설가 이외수 집필실 및 감성마을, 강화도 우리마을, 파주 어우저동산, 카메라타 황인용 음악 스튜디오, 수곡리 '모'자집 등이 있으며, 한국건축가협회상, 아천상, 크리악 어워드, 다수의 미국건축가 협회상 등을 수상했다. 2004년에는 미국 'Architectural Record'에서 선정한 세계의 선도적 건축가 11인에 포함되기도 했다.

건축사 '조병수',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건축을 통한 세계의 화합과 소통을 말한다.

건축사 조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Clue(실마리)'로 시작하는 주제가 흥미로웠고, 평소에 풀어보고 싶었던 것을 국내외에 실마리로 던져보고 싶어서 2009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집(住)'이라는 주제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삶(住生活)에 접근하고 싶었으며, 빛을 통해(Clue One), 소재원을 통해(Clue Two) 세계의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내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세계 24개 도시의 빛을 모두와 함께 관찰함으로써 세계인들의 생활의 다양성을 빛의 미세한 차이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소재원을 다양한 국내의 작가들에게 실마리로 던졌을 때에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중국에 그는 평화의 메시지를, 친사회적 건축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디자인 재해석의 대상으로 소재원이 선정된 이유는? "소재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

다. 예외적으로 보존이 잘되어 있는 곳이고, 또한 목판화가 남아 있어서 예전 모습을 들여다보고 해석하기가 쉽다. 또한 목판화에 새겨진 김인후의 소재원 48명의 경우는 사람들의 심, 정원에 대한 서술, 당시의 관심, 가치관 등등이 잘 나타난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보존이 잘 되어 있으며, 좋은 자료가 있는 소재원을 선택했다. 소재원을 재해석해서 우리가 제시한 프로그램에 맞게 풀어내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각 작가들의 작품에는, 그 속에 이미 전체 주제인 The Clue(단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즉, 작가들이 제시한 작품 속에서 clue(단서)가 보여 질 것이라 보인다."

상징조형물에 대한 디자인의 의의는?

"팔각정에 인접한 주변 환경을 반영시키는 데 있다."고 했다. 팔각정 앞에 존재하는 자연의 존재를 조형물로 인해 새로이 깨닫고,

그 주변자연으로 인하여 팔각정은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또한 팔각정 자체는 사람과의 소통으로서의 의미 또한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 조형물은 팔각정이 역사에 어떠한 건물이었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며, 현재 위치에서의 사람과의 소통을 하느냐 하는 가치에 더 집중했다고 한다.

끝으로 광주라는 도시에 대한 인상을 물었더니, "역사와 문화적인 도시임에도 기존의 것이 많이 훼손되어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적이고 문화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많이 약해서 아쉽고,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광주지역 건축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함께 모여 협력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한다고 했다.

서재형 건축사 기자
archiseo@tycos.co.kr
신영은 건축사 기자
archsye@naver.com

(주)에이엠지그룹은 전문화된 기술력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과 시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축설계 및 감리

대형한 프로젝트의 기획, 전체 경험중 베탕으로 High Tech신계, 친환경경제, 저저인 디자인등 특화된 분야의 넓은 구성하여 건축주에게 보다 전문화된 디자인과 기술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실내디자인

주어진공간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디자인 / 창의적이고 고객중심의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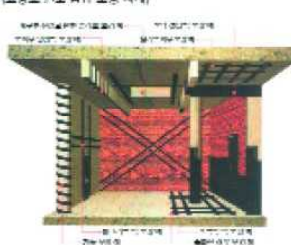
■시설물유지관리 및 내진보강설계 및 시공

건축물을 제1차로부터 부후하며 합리적인 건축주가 되도록 내진보강의 체계적인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친환경 세련된 적외 사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건축주의 고충선진 실현하겠습니다.

■SK계미갈 보강자재 시공 및 설계

-기존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계획시 건축공급 원거 하지 않고 고강도 현소설유 공법으로 적용하여 시공.
-고강도 현소설유 공법인 SK Strip System & SK Re-Bar System을 보의 인장 및 견인부분,기둥, 콘크리트, 문턱, 주철의 등에 적성의 적용하여 구조 안정성 확보.

※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기둥, 도목구조물, 타설, 사이로 등)에 초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강도 현소설유 보강 사례)



충남공인인증서
(내진보강전문사)



건축설계사 김나 김홍동 694-10
191,082,538 1983,1913,082,532,0398
www.aemj.com www.28333@naver.com

민씨건축
-건축설계 / 감리 (413271호)
-실내건축공사업(중수축 2008-01-01)
-시설물유지관리업(중수축 2009-09-01)
-실내디자인건축회사 (41020호)



광주건축 · 도시문화제
GWANGJU FESTIVAL OF ARCHITECTURE & URBAN CULTURE

theme of 2009 GFAUC

재발견

건축+도시+인간 : 우리들 삶의 재발견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건축'과 우리가 '숨 쉬는 도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문화제가 예향 광주에서 열린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2009년 '광주건축 · 도시문화제'는 '재발견(Re-discovery)'을 주제로 광주의 건축과 도시문화를 재발견하고 나아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재발견하고자 한다.

이번 문화제는 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건축문화를 대중화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 종 전시행사와 심포지엄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일반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회, 건축가협회 광주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문화제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건축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광주시민 모두의 축제로 거듭남으로서 예향광주에 걸맞은 '건축문화'와 '문화도시'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6회 2009년 '광주건축 · 도시문화제'를 미리 한 번 돌아본다.



시민과 함께하는

제6회「광주건축 · 도시문화제」

'재발견(Re-discovery)'을 주제로 11월



금상 광주공간건축사사무소 조성호 건축사
세계 광엑스포 주제 전시관



은상 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임경희 건축사
4D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품 전시

광주시는 제1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금상에 광주공간건축사사무소 조성호 건축사가 설계한 상무시민공원의 '세계 광엑스포 주제 전시관'을 선정했다.

은상에는 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임경희 건축사가 설계한 남구 칠석동 '4D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과 포유건축사사무소 박흥근 건축사가 설계한 북구 운암동 '문화여성병원'이 선정됐다.

동상에는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이순미 건축사가 설계한 북구 문흥동의 '북구 청소년 수련관 별관'과 다원그룹 건축사사무소 김대원 건축사가 설계한 '라마다 프라자호텔', 발해건축사사무소 이주경 건축사가 설계한 북구 대촌동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가 각각 선정됐다.

'광주광역시 건축상'은 건축문화의 창달

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989년부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을 설계한 건축사와 시공사 등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상했다.

이번 '제1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작품을 모집한 결과 총 17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시는 대학교수, 시민대표, 언론인 등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금상 1점, 은상2점, 동상 3점 등 모두 6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예년보다 많은 작품이 출품되어 문화중심도시의 면모를 대내외 과시하고, 수준이 높고 다양한 건축설계 기법이 가미된 작품이 많아 미래건축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은상 포유건축사사무소 박흥근 건축사
문화여성병원



건축모형 작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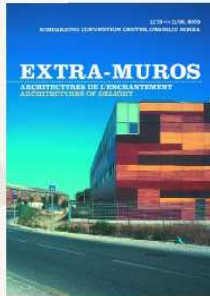
건축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건축모형이 전시된다. 실제보다 작게 만들어지는 건축모형은 건축가에게는 창작에 대한 고뇌의 산물이지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 데는 아주 제격이다. 이번 모형작품들도 많은 시민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 · 도시문화제」

! 19일부터 22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프랑스 문화진흥원 해외 건축전

글로벌시대에 발맞추어 해외 건축문화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금번 해외 건축전에서는 프랑스 문화진흥원에서 선발된 작품이 전시된다. <<환희의 건축 Extra-muros>>는 애초에 Cite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 프랑스 건축연구원으로 조직된 현대건축 평론과 사진카달로그를 기반으로 계획, 구상된 전시회이다. 이 전시회는 현재 도시 상황, 지역적, 또는 전세계에 걸쳐 연관된 프로그램 관련 이슈들의 건축에 초점을 두어 특별히 전세계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맞춰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건축물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다 색다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엑스트라무로스' 전시는 진정한 모험과 발명에 대해서 또 다른 정의를 내린다. 이 전시에서 소개되는 40개의 작품들은 <<좋은>>건축물을 생각보다 쉽게 우리의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훌륭한 건축물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 한다. 더 단순히 말하자면, '훌륭한 건축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수하거나 훨씬 덜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광주건축사 초대전

이 지역 건축사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 20여점의 우수한 건축작품이 초대되어 전시된다. 초대전에서는 작품의 배경이나 설계자의 의도를 도면, 사진, 스케치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으며,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사들의 철학이 배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2009 자랑스러운 광주 건축인
故채규당건축사 선정돼**

사단법인 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서 제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기념하여 2009년도 자랑스러운 광주의 건축인으로 故채규당 건축사(1925~2004)를 선정하였다.



故채규당 건축사는 광주시청을 거쳐 광일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다양한 작품활동을 하였으며, 대한건축사협회 전남지부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대표적으로는 광주 세무청사, 영광공설운동장, 서광주농협청사 등이 있다.

건축문화 심포지엄 안내

제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기념하는 건축문화 심포지엄이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일반시민과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 1회 세미나

일 시 : 2009년 11월 19일 (목) 15:00~17:00
초청 강연자 :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주 제 : 전통건축을 보는 눈

• 2회 세미나

일 시 : 2009년 11월 20일 (금) 14:00~16:00
초청 강연자 : 임권택 (영화감독)
주 제 : 한국 미의 재발견

• 3회 세미나

일 시 : 2009년 11월 21일 (토) 14:00~16:00
초청 강연자 : 김상대 (고려대 교수)
주 제 : 초고층과 도시문화



**광주건축·도시문화제의 전야제
'건축인의 밤'**

2009년 11월 18일(수) 오후 6시
무등파크호텔 4층 다이아몬드홀

제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자축함과 동시에 건축인의 화합을 위한 한마당이 펼쳐진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최하는 '건축인의 밤'은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건축사와 시공자 및 교수 등 각 분야의 건축인들이 참석한다. 특히 건축분야의 광주·후쿠오카교류 1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건축가들도 다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의미가 더욱 빛날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광주 '건축인의 밤'은 11월 18일(수) 오후 6시에 무등파크호텔 4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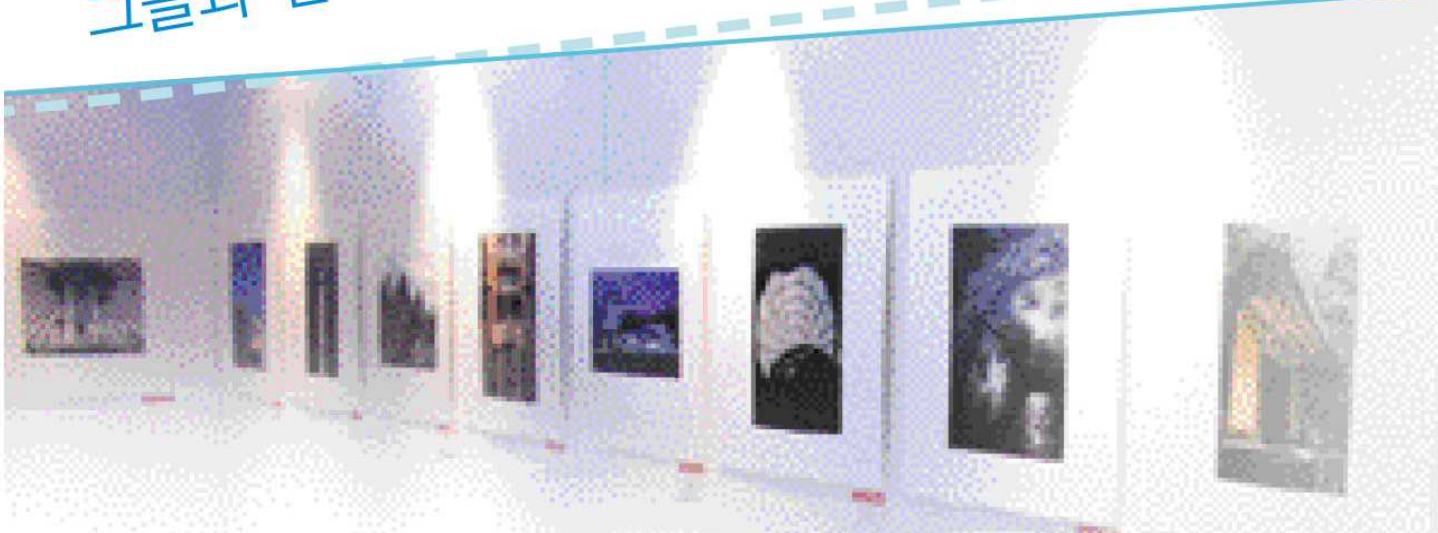
광주건축·도시문화제
theme of 2009 GFAUC
재발견
건축·도시공간·문화를 삶의 자원으로

2009

Guangju Festival
of Architecture & Urban Culture

제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건축과 도시의 주인은 바로 시민!
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예향 광주! 문화수도 광주!**



최우수상 / 김영일 「고건축」

건축·도시 사진공모전

도심 속 건축물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시민들이 모습을 통해 삶을 재발견함으로써 건축문화의 가치와 도시문화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진을 공모하였다. 이번 사진 공모전에는 총 70여점의 작품이 응모되었는데, 최우수상에는 김영일의 '고건축'이, 우수상에는 신영은의 '도란도란'과 김정숙의 '광엑스포주제관'이 각각 선정되었고, 장려상 3점과 입선 15점도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건축·도시 사진공모전은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우수 학생작품 전시회

건축학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국 공모전 입상작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건축전공 대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작품에 나타난 장래 건축가들의 뜨거운 창작열과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문화수도 광주의 건축문화 미래를 미리 가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우수상 / 신영은 「도란도란」



우수상 / 김정숙 「광엑스포주제관」





유치부 금상 / 신석훈



유치부 금상 / 김재훈



초등(고)부 최고상 / 김주연



초등(저)부 최고상 / 최가은



중등부 최고상 / 박미라

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

유치원, 초·중등학생에게 생활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건축물에 대한 미적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림을 공모하였다. 이번 그림그리기 대회에는 총 400여점의 그림이 응모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수상작은 유치부, 초등학교(저), 초등학교(고), 중등부로 나누어지는데 유치부에서는 신석훈군과 김재훈군이 금상을 수상하였고, 초등저학년에서는 최가은(용영초 2)양이 최우수상을, 한도빈(수원초 2)군이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초등고학년에서는 김주연(대성초 6)군이 최고상을 흥민색(유안초 6)군과 김옥아(문흥중앙초 5)양이 금상을 수상하였고, 중등부에서는 박미라(봉선중 2)양이 최고상을 김태은(동아여중 2)양이 금상을 수상하였다. 입선작들은 건축·도시문화제 기간동안 전시되며 시상식은 11월 21일에 개최된다.

- 유치부 : 금상(2인), 은상(3인), 동상(4인), 입선(34인)
- 초등(저학년) : 최고상(1인), 금상(1인), 은상(3인), 동상(7인), 입선(38인)
- 초등(고학년) : 최고상(1인), 금상(2인), 은상(4인), 동상(7인), 입선(32인)
- 중등부 : 최고상(1인), 금상(1인), 입선(4인)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장려하기 위해 선정된다.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자는 의미다. 선정된 경관자원을 돌아보며 우리 주변의 썸지공원과 담장 그리고 길목 등을 어떻게 가꾸고 살려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적으로 공간상에 선정되면 동판으로 제작한 상패가 부착된다.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장애없는 세상만들기'는 건축전문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시도되는 프로젝트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에게 장애가 되고 있는 물리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심리적 장애요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는 취지다. 2007년을 원년으로 하는 '장애 없는 세상 만들기'는 대학생, 교수, 건축사, 건설사, 광주광역시 등이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진정한 '인권도시' 광주로 거듭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앞에 설치된 무장애 버스정류장 (2008년)



실로암센터 리모델링(2008년)

건축상담코너

2008년 문화제부터 여성건축사들이 주축이 되어 무료 건축상담코너가 개설된다. 건축상담코너는 시민들의 건축에 관한 궁금증을 건축사가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 줌에 따라 건축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여 광주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 의미에서 출발되었다. 건축·도시문화제가 진행되는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건축상담코너를 찾아오면 건축법규, 설계, 시공 및 민원사항 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다.



제4회 광주건축박람회

이번 문화제 기간 중에는 광주건축박람회가 같은 장소에서 더 불어 펼쳐진다. 주택산업 활성화와 미래지향형 주거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새로 개발되거나 성능이 개선된 건축자재를 비롯하여 다양한 건축정보가 제공되므로 건축종사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 축 간



(주)건축사 사무소 영일. 필

본쟁은 공정한 평가와
대화로 해결된다.
감정인 건축사 정태호

25년 공사원가분석
15년 법원 공사비 감정 위원
광주시 북구 중흥동 694-10 (건축사 회관내 2층)
TEL:062521-8044 HP:011-602-3378

공사비 감정 / 기성고 감정 / 유익비 감정 / 공사비 평가



공제 전국3연패 달성
나날이 발전하는 신흥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1동 694-10
T.527-8890-91

www.u-top.co.kr

ONE STOP INTERGRATED SERVICE IN

Universe Top



유탑엔지니어링은 설계, 감리, 엔지니어링 및 시공을 총괄하는 CM주체로 국내를 넘어 세계건설시장을 리드하는 기업입니다



종합감리업

고객편익을 위한 엔지니어링 고충원격



CM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총괄 관리·감독



설계

고객을 위한 실무형의 설계 사무소



건설

가능여 타지역 포화 지역 선진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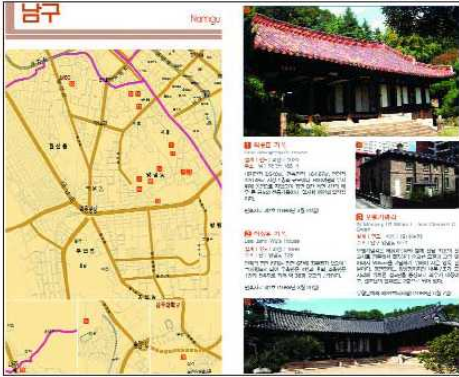
해외사업

원격형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외사업진출

UTEA (주)유탑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55-22 대영빌딩 5층 T.062-233-7041 F.062-233-7047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재동 275-2 현대스프링빌딩 19층 T.02-2048-2400 F.02-3462-6642
 미국사무소 : 1116 Kendall ct, San Jose, CA 95120 USA T. 001-1-408-482-3445

“광주건축 지도” 발간



하는 안내서가 없었으나 금번 '제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와 광주건축단체연합회에서 「광주건축지도」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광주를 5개 구청별로 구분하여 현대, 근대, 고대건축물과 조경 시설물들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21C는 도시간의 경쟁 시대이며, 도시 투어리즘의 시대라고도 한다. 도시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가진 환경이나 문화, 역사 등을 관광 상품화 하는데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건축물과 관련된 것들이다. 아쉽게도 광주의 건축 자산들을 소개

간단한 안내지도와 해설을 가미하여 제작 하였다. 이는 광주를 알리는데 중요한 홍보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문화제 기간 중 일반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남승진 교수

광주-후쿠오카 교류 10주년 기념지 「교류는 미래를 향한 도전」 발간



대한민국의 광주 건축사회와 일본의 후쿠오카 건축가협회 교류 10년을 기념하여 「교류는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광주-후쿠오카 교류 10년사가 발간되었다. 광주 건축사회와 일본 후쿠오카 건축가협회는 1999년 4월 5일 교류를 시작하여 10년간 꾸준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교류의 주요 내용은 광주·후쿠오

카 건축교류전을 매년 양국에서 전시, 양국 회원간의 방문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명실상부한 교류문화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 기념지는 2008년 8월 한일교류 10주년 기념지 발간 위원회의를 시작으로 1년동안 광주와 부산, 후쿠오카를 오가는 고난한 작업을 거쳐 마침내 완성되었으며, 김희현, 신정철, 안태경, 강필서, 최보은(이상 한국건축사), 구라야 매희(일본 건축가), 남승진(교수, 동아인재대), 김재성(광주시건축사회 국장) 등이 참여하였다.

강필서 건축사

11월 3일 대한건축사협회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3단체 통합 아쉽게도 부결

찬성 58.31%, 반대 41.69%에 따라

2006년부터 추진되어왔던 3단체 통합(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회)이 통합을 목전에 두고 지난 11월 3일 대한건축사협회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3단체 통합은, 2007년 12월 24일 3단체의 기본합의서 서명을 계기로 본격적인 단체통합 논의를 시작하여 2008년 2월 21일 3단체의 통합합약서를 통해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를 설립 50여회의 회의를 가져왔으며 2009년 2월 9일 정관(안) 및 규정(안) 합의서의 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3단체 통합이 가점사실화 되는 듯하였다. 각 단체의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건축사협회 통합대회"를 개최하려 했던 계획은,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3단체

합의 내용을 원안 승인하였으나, 건축가협회가 지난 5월 20일 임시총회에서 원안을 수정하여 통과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초의 정관안이 효력을 잃어,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11월 3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 '단체통합을 위한 정관 제정의 건'으로 재 표결을 실시하였으나 성원 투표인 319명 중 찬성 186표(58.31%), 반대 133표(41.69%)를 얻음에 따라 통합에 대한 계획이 미뤄지게 된 것이다. 임시총회에서의 결과에 의해 3단체는 다시 재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건축사협회는 2월에 있을 정기총회에 재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영은 건축사 기자 archsye@naver.com

건축사그룹화 특별위원회 활발한 활동 펼쳐...

그동안 건설 경기 불황과 실제 시장 축소, 건축 기본법 제정 등으로 인한 외부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주 건축사회에서는 개인건축사사무소의 그룹화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그룹화에 대한 연구팀을 구성 활동 중에 있다. 지난 3월 실시한 광주 건축사 발전계획 설문 조사결과, 회원 67%가 그룹화로의 전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함에 따라 6. 22일 그룹화 연구팀(심상봉 부

회장외 6인)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기 시행중인 그룹화 사무소 방문 등을 통하여 현재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안을 정리 중에 있다. 그룹화 특별위원회는 群集을 통한相生을 설정하고 규모의 대형화, 업무의 전문화,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형태를 정리하여 추후 회원 정례모임을 통하여 보고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부회장 심상봉

건축사 Gallery

건축3단체 통합을 꿈꾸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기아 이끌어내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향내가 이르렀는데 산비둘기의 도리가 우리곁에 둘러놓구나.」



나는 매년 이맘때 상사화꽃을 바라다 볼때 언제나 내안에 있는 그리움을 생각해 본다. 「이룰수 없는 사랑」「서로를 그리워 하는 꽃」이라는 그의 꽃말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안에 있으나 서로의 마음이 닿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그리움, 얼굴을 보면서도 속을 보지 못하여 그리워하고... 같은 언어를 주고 받기도 서로의 속마음을 볼 수 없어서 그리워하고... 2009년 올해도 불갑사의 상사화는 피고 지는데 나는 내안에 그리움의 꽃대를 세워 서로를 향한 이해와 관용과 포용으로 하나로 피어날 그리움의 상사화를 꿈꾸어 본다. 심상봉 건축사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개정 재입법예고(안)

광주광역시에서는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재입법예고하여 2009. 10. 16 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행 "소규모 다가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1. 당초입법예고(안)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공동주택 세대당 0.7대 이상 2. 재입법예고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공동주택 세대당 0.5대

대학소식

광주대학교/건축학과/졸업전시회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21회 건축전
2009.10.27(화)~10.30(금)
교내 호심기념도서관 5층 전시실



2009년 2학기 초청강연회

1. 현실적 건축과 도시 리얼리즘
11월 5일(목) 오후 3시
강사: 광희수(이템도시 건축)
호심기념도서관 5층 세미나 1실

2. 건축과 디자인

11월 25일(수) 오후 3시
강사: 김중근
(앤드건축사사무소)
호심기념도서관 5층 세미나 1실



호남대학교/건축학부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
2009.11.4(수) - 2009.11.6(금)
호남대학교 복지관 3F 교수세미나실

동신대학교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제19회 졸업작품전시회

2009.10.29(목) -
10.31(토).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5층 특별 전시실



국립목포대학교/건설공학부/건축공학과

2009학년도 건축공학전공 졸업논문전시회

2009.11.11(수) - 2009.11.13(금)
국립목포대학교 플라자 60 전시실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작품전 2009

2009. 9.23(수). - 9.25(금)
전남대학교 공대 2호
관 1층 특별전시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 2009

2009.11.04(수). -
2009.11.06(금).
전남대학교
바이오 하우스 구조
실험동 1층

순천대학교/건설학부(5년제)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제 23회 졸업전시회

2009.11.4(수) - 11.7(금)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
관 전시실



초청강연회

1. 강사/ (주)해안건축 김태만 대표이사
2009.11.5(목) 14시
2. 강사/dmp 김기택 상무이사
2009.11.6(금) 14시
순천대학교 70주년 2층 대회의실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건축과 50주년 건축전

2009.11.25(수). - 2009.11.27(금).
조선대학교 공대
1호관 건축공학부(9층)/건축학(11층)

조선이공대학/건축과

2009학년도 조선이공대학 졸업전시회

2009.10.29(목) - 2009.10.31(토)
조선이공대학교 이공대
1호관 1층 설계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편집위원 문창식, 이순미, 정명현, 문현희, 신영은, 서재형, 최보은, 김삼현, 김기탁, 정대호
발행인 신정철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편집인 박홍근 광고신청 T. 062)521-0025



표/지/설/명

작은 흙씨들은 자연환경 속에서 스스로 생명을 잉태하여 자신만의 자태를 뽐낸다. 건축도 다양성 속에서 삶의 구성요소들과 함께 행복한 우리네 공간을 만든다... 이런 이념을 바탕으로, 축약된 각각의 흙씨를 원으로 압축하여 architect, architecture, art 의 'a'를 형상화 하였다.

전남대학교 신남수교수 퇴임



8월31일 전남대학교 (이하 전남대) 건축학부 신남수 교수 퇴임식을 거행했다. 신남수교수는 그동안 42년간 전남대와 함께 하며 1천5백명 정도의 제자를 배출하였고 그의 제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건축과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신남수교수는 학자로서 '기본'을 중시하는 철학을 가졌으며 광주 건축도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9월19일에는 신남수교수와 일생을 함께 한 전남대와의 이별을 알리는 고별강연을 개최했다. 강연장에는 선후배 교수, 제자, 건축사 등 약 250명이 참여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였으며 과거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신남수교수는 동구에 조그마한 연구실을 개설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순미 건축사 기자
(migaon@hanmail.net)

김후진 건축사 시정질의



광주광역시의회 최다선(3선)의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후진 건축사가 광주광역시의회 제118회 임시회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하였다.

1. 시민과 함께하는 인공호수공원 조성
2. 문화가 곧 미래의 경쟁력
3. 에너지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4. 출산장려운동
5. 불안한 노후, 고령화 준비없는 사회

광주여성건축사회 영광지역 건축답사 다녀와..

광주 여성건축사회(회장 김금진)는 지난 10월 24일 영광지역으로 건축답사를 다녀왔다. 광주 여성건축사회는 광주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경력 있는 여성건축사 12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광주시 건축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광주 건축·도시 문화제에서 무료건축상담코너를 운영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현희 건축사 기자
honeyym@empal.com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jk@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모든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모든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소식지에 바란다

장상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의 『건축문화사랑』이라는 창간호를 발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신정철 광주광역시건축사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건축사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ews letter』창간호인 『건축문화사랑』은 일반시민들과 건축인에게 건축분야의 다양한 변화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시간의 무한경쟁시대에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도시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매우 시의 적절한 발간입니다.

그 동안 광주 건축사회의 역할은 건축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연구를 통하여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역사 동안 건축사 업계가 늘 평탄한 길을 걸어오진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닦친 해도 있었고 건강한 뿌리를 내리기 위한 시련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고 우리지역의 경제발전의 디딤돌로 튼튼

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 지역 건축사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함께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건축문화사랑』이라는 건축 월간지를 발간함으로써 우리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척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도 건축인과 일반 시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건축정보지를 통하여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건설한 네트워크와 선진 건축문화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뜻 깊은 『건축문화사랑』발행을 통해 지역 건축 활성화와 건축문화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많은 의견과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는 건축사인과 함께 1등 광주 건설을 위한 품격높은 건축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간의 경쟁력 선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축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뜻 깊은 창간호를 통해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축사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나무심는건축인
(NGO) 대표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뉴스레터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소식지가 '건축문화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건축인을

넘어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올바른 건축문화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나도 축하 한·마·디

예향의 도시에 걸맞은 올바른 건축문화를 이끌어 주는 매체가 되기를...

신선한 비타민 같은 건축소식을 전해주시기를...
양동협 / (주)한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 게재 요망...
심상봉 / (주)건축사사무소 AD그룹

매일 발간, 광고주확보(회원사부대)...
이창률 / (주)G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연속성이 되기 위한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문창식 / 우리 건축사사무소

항상 새로운 이야기로...
정지웅 /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식지를 보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아주길...
윤석호 / (주)G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건축설계를 홍보하여 일반시민들이 건축설계의 중요성과 건축사 역할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탁 / 간 건축사사무소

자기 반성적 내용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동준 / (주)그림포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와 공유한 사회, 문화, 환경, 교육, 교통에 접목된 사실
김권수 / (주)양진건축사사무소

장수하는 소식지가 되어 광주 건축사를 빛내는 창조물이 되기를 바란다...
문현희 / 건축사사무소 GM

작은 울타리에 안주하지 말고 넓게 비추는 소식지가 되길

바란다...
김종철 / 영상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빛고를 건축문화의 변천사(연재) 신찬균 / 건축사사무소우창

많은 건축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누가 보아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건축인들의 노래가 되었으면 한다...
김후진 / 반석 종합건축사사무소

현실 인식과 희망적인 내용...
윤재훈 / 이앤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보관 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됐으면 합니다...
김기준 / (주)맥스유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News Letter여 영원하라!..
박진호 / 건축사사무소 이강

동호회 소식 | Golf



- 골프 동호회
- 남시 동호회
- 등산 동호회
- 미술 동호회
- 바둑 동호회
- 축구 동호회

동호회 연혁 15년째를 맞고 있는 광주건축사 골프동호회는 그동안 건축사의 선·후배와 지역간의 교두보 역할을 했으며 건축사의 작품활동의 심터를 제공하고 우정을 배우는 활동장으로 성장해왔다.

지난 5월 남광주CC에서 광주건축사협회장배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10월 동호회장배에서 정정호(터 건축사사무소) 회원이 69타를 기록하여 우승하였다. 오랜 숙고 끝에 '전남광주 건축사

골프 교류전이 금년 6월 광주건축사 골프동호회의 주최로 첫 발을 내딛었으며, 10월에는 전남건축사 골프동호회의 주최 하에 상대한 교류전의 행사를 열어 지역간 건축사의 가교역할을 훌륭하게 성공시켰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작품의 세계를 초월한 친교의 동호회로서 많은 회원이 함께하길 바란다.

김권수 건축사

합동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30
전화 : 062)222-1762
팩스 : 062)222-2918
핸드폰 : 016-603-1762
이메일 : sanman100@hanmail.net

각종 고급인쇄 · 편집 · 즉석명함 · 기념패 · 칼라, 고속복사/출력



국내·해외관광 / 여행알선

대표 장현진

(주)보아여행나라

H·P: 011-608-3032

e-mail: boa5588@hanmail.net

종합건축사사무소 은강

대표 건축사 노진욱

Tel.062)361-0024, 0053

H·P. 011-666-002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30-2

EUN KANG 건축설계 건축관리 건축감리 건축재계 건축시공

영록사슴농장

(녹용, 중탕, 녹용·직접 가공해 드립니다.)

영록화원

전화 한통하면 전국에 책임배달 화환, 화분, 각종꽃

문의전화: (062)526-0202

농협 645814-52-028939 고명석

▷ 10억 5천만 원의 힐스테이트 상무 아파트 단지 100여 세를 선보입니다.



2009 신공공주택평가 1위
신공공주택 "AA" 등급 획득

- 아파트는 하나의 공간을 똑같은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 서로 다른 수많은 공간을 더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STATE가 필요하다

세상 누구와도 다른 당신의 취향, 문화,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기에 힐스테이트는 그 하나하나를 모두 담은 삶의 공간을 생각합니다

당신만의 스테이트
HILLSTATE

상무 힐스테이트

2010년 2월
입주예정

샘플하우스
공개

양도세면제
(5년간)



현장내 분양사무실 운영

문의 **225-3115**

사명 | **문주 D&C**
사명 | **現代建設**

대형평형 명품주거단지 · 총336세대

158㎡(42세대) / 192㎡(14세대) / 224㎡(15세대) / 225㎡(130세대)

16기 2호 7층 / 16기 2호 15층 / 16기 2호 15층 / 16기 2호 15층